

CONTENTS

- 01 이슈공감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 이상신
- 02 연구소 소식
- 03 주요 수행연구 소개
- 04 행사 및 교육



01 이슈공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1년을 돌아보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 이상신(sinslee@cni.re.kr)

2015년 3월 27일 내포신도시에 개소한 충남연구원 산하기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개소식 이후 약 10개월이 지나 2016년을 맞이하였다. 되돌아보면 아직도 본격가동을 위한 준비 중은 아닌지 하는 아쉬운 마음과 충남도민의 바램인 충남지역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물어 보게 된다.

개소식과 함께 출범한 우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중간조직의 역할과 함께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설립당시 주어진 역할과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하고, 충남도 산하 여러 조직과 중복된 기능에 대한 조율에 지난 시간을 보냈다. 2015년은 도청 내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정기간담회를 통해 20여건의 연구과제와 10여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10여건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되돌아보면 2명의 연구원으로 출범하여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미진했던 연구원 내부 및 외부현황 파악으로 흑독한 조율의 시기를 거쳐,

구성원을 7명까지 늘리고 설익은 과일을 수확하듯 연구결과물을 급하게 거둬들이며 다시 한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16년은 설립당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기능을 다시 찾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한해라 생각된다. 2016년 기후변화분야는 신기후체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충남도내에서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 주변 기후변화 모니터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제적인 현안과 충청남도 관련 사업 지원이라는 본질적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한해이기도 하다.

과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출범하기 전 충남도에 있어 기후변화문제는 위기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출범 이후에는 기후변화를 미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센터가 충남도의 희망을 준비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02 연구소 소식

01 충남연구원 2016년 전직원 워크숍, “오감 찌릿찌릿~ 이한치한”



충남연구원은 연구원을 비롯한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천 인근 글램핑장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을 방문하였고, 연구원의 화합을 위한 요리경연대회와 함께 바비큐 파티와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원 워크숍은 주제와 걸맞게 높이 쌓인 눈과 낮은 기온, 거센 바닷바람으로 인해 혹한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연구원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02 충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호서대학교 업무협약체결



2016년 2월 1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에서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호서대학교간의 업무협약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협약 주체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호서대학교의 산학협력단,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단으로 산학협력, 기후변화 연구,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남권역 기후변화 연구 및 교육의 우수협력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내 연구진 간의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연구소 내 연구원간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18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와 최진하 소장을 비롯한 연구소 내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한 연구 결과와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서원간의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정 정책연구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구성과 교류 워크숍을 추진하여 연구소 구성원의 중·장기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충청남도의 기후·환경분야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03 주요 수행연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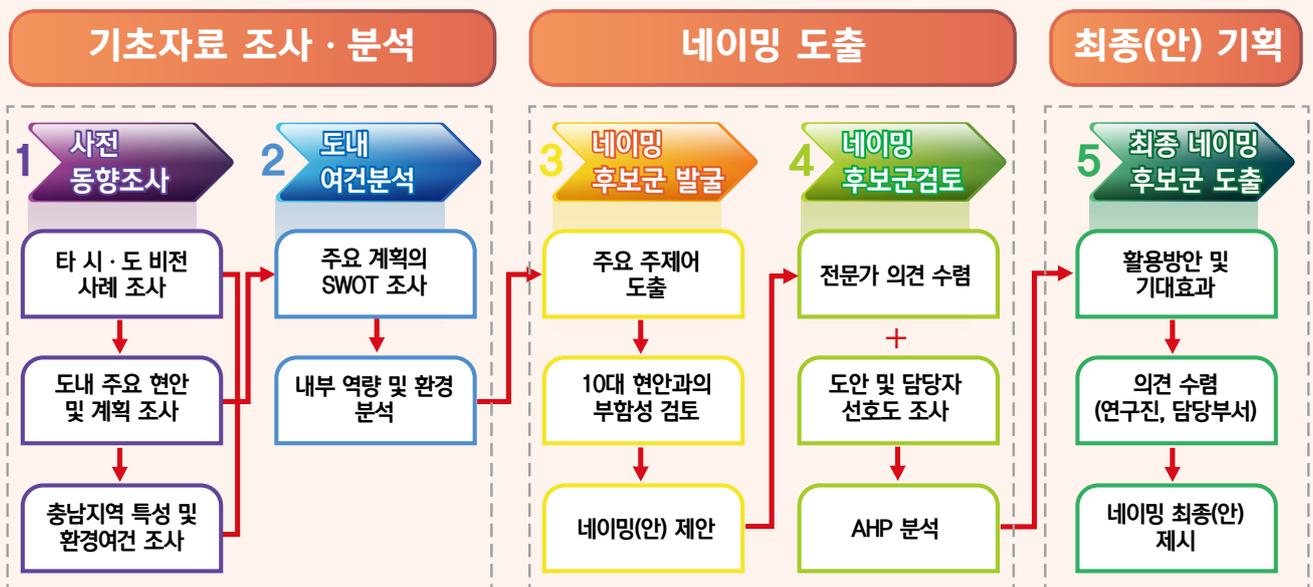
• 주요연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
충청남도 기후변화(에너지·산업·녹색성장) 정책 통합전략 연구	이상신
깨끗한 충청남도 연안환경 관리 방안 연구	윤종주
충남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용전략	표정기
충청남도 도량살리기 사업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김홍수
석문호 수질개선방안 연구	김영일
보령댐 급수지역의 가뭄 대응방안 개선연구	정우혁

• 연구소개 / 충청남도 기후변화(에너지·산업·녹색성장) 정책통합 네이밍 개발

신(新)기후체제의 도래에 맞추어 선진국 및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를 설정하였으며, 부처별로 협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국내 석탄화력 발전시설의 약 50%가 위치한 지역으로, 충남지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가 발전소와 플랜트에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력발전소 및 에너지플랜트 등의 오염원 제거 또는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고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일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후변화(에너지·산업·녹색성장) 전략 및 비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을 통합·추진할 수 있는 정책통합 네이밍을 개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04 행사 및 교육

내부행사

- 깨끗한 충남만들기 범도민 운동 공동선언(01.21, 충남도청)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체결(02.01,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발전방안 토론회(02.03,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연구소 연구진간의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한 워크숍(02.17,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영향 모니터링 사전 현장조사(02.23-24, 도내 화력발전소주변)
-
- 물의 날 행사(03.22,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개소1주년 기념 심포지엄(03.25,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외부행사

- 시군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01.14, 충남도청)
-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심포지엄(01.29,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 특별세션 : 기후재난에 따른 국가기후변화 적응방안
(02.18,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306호)
- 2016년 제 1차 해양수산분과 회의(02.24, 보령 한화리조트)
- 2016년 기후변화 생태계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국제 워크숍(02.26, 서울대)